

명상상담자의 핵심역량의 기본관점 및 개념구조

A Study on the Basic Perspectives and Conceptual Structure of Core Competencies for Meditation Counselors

임세라* · 이희정**

영문이름 · 영문이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asic perspectives and conceptual structure of core competencies necessary for enhancing the expertise and role of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ors. Through this, we intend to present competency indicators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cess of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ors, helping them acquire the necessary job skills. The research scope included a

* 각주 내용 없습니다.

** 각주 내용 없습니다.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n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ing and core competency models for professionals. Following this, we presented the basic perspective of core competency design by Sperry (2010), and in accordance with Boyatzis's (1982) guidelines stating that the conceptual structure of core competencies for specific professionals can be derived through literature exploration, we examined the key points of the conceptual structure of core competency clusters. Through the competency indicators and explanations derived from the competency clusters, we presented elements to be reflected in the education and qualification training process for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ors. To this end, we explained the job scope and concept of core competencies for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ors. We confirmed that knowledge, skills, qualities, and attitudes should form the core competency clusters for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ors. Additionally, we discovered competency indicators according to the competency clusters for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o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crete proposal of the conceptual structure of core competencies for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ors by integra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meditation studies,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ing, and core competency model development. We expect this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perceptions regarding the professionalism and role of meditation psychology counselors.

Key words: Meditation Psychological Counselor,
Core Competencies, Competency Clusters,
Competency Indicators, Job

요 약

본 연구는 명상심리 상담자의 전문성확보와 역할제고를 위해 직무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기본관점과 개념구조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명상심리 상담자의 학습과 훈련에 필요한 역량군과 역량요소를 제시하여 직무능력 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국내·외의 명상심리상담과 직무자들의 핵심역 량모형에 관한 연구물을 고찰하였다. 이에 Sperry(2010)의 핵심 역량 구안의 기본관점을 제시하고, 특정 직무자의 핵심역량의 개 념구조 확인을 위해서는 문헌 탐색을 통해 도출해도 된다는 Boyatzis(1982)의 지침에 따라 핵심역량군의 개념구조의 주요점 을 알아본다. 이에 명상심리 상담자들을 위한 지식, 기술, 자질 및 태도가 핵심역량군이 되어야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명상심 리상담자를 위한 역량군에 따른 역량요소를 발견하였다. 국내·외 명상학과 명상심리상담학 및 핵심역량모형개발에 관한 문헌들을 통합하여 명상심리상담자들의 핵심역량의 개념구조를 구체적으 로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명상심리 상담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명상심리상담자, 핵심역량, 역량군, 역량요소, 직무

I. 서론

최근 국내에서 명상심리 및 명상상담 전공과 관련된 학과들이 등장해왔다. 더불어 명상지도나 명상교육, 명상힐링, 브레인명상, 요가명상 등의 분야에서 명상을 활용한 심리상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명상심리상담 관련 학과 및 자격증운영기관들은 통상적으로 명상을 적용한 심리상담 개입을 학습과 직무훈련의 내용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과 직무훈련내용 및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자격증 운영기관의 학문적 체계와 자격 검증 방법은 일괄적이지 않고 관련대학과 자격증운영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명상심리 상담자들의 역량군과 역량지표에 관한 개념구조가 모호하다. 특히 명상심리 상담자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부재와 양성기관에 따른 교육과 훈련 기간, 교과목의 종류, 교과목 이수시간 등 질적인 수준이 일괄적이지 않다. 예컨대, 단기간의 교육으로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쉽게 자격을 취득하는 명상심리 상담자과정부터 석사학위과정을 통해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들을 비롯하여 박사과정을 통해 명상심리 상담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을 경험한 명상심리 상담자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이에 따라 명상심리 상담자들은 각기 매우 상이한 경력과 역량을 지니게 된다. 특히,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들은 명상심리 상담 기법만을 중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석사과정이 설치된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는 임상 및 상담에 비중을 둔 내용보다는 명상이론과 체험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명상심리상담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체계에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체계의 기준체계를 삼을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명상심리상담교육과 민간자격 증발급을 통해 급격한 양적 팽창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문적이지 못한 교육과정, 임상실습, 지도감독 등을 경험한 명상심리 상담자들이 증가하면서 역기능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전문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명상심리상담자들이 실제 임상 장면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명상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결국,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진단의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상담 및 심리 치료적 개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명상심리 상담자도 상담 및 심리 치료사로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나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인경, 2012; 임승택, 2009). 특히 명상심리 상담자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국내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겸비한 지식, 기술, 자질 및 태도와 간극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인경, 2012). 더불어 명상심리상담학 분야의 전문성 및 정체성의 저해와 직무분야의 침체가 발

생될 수 있다(김정호, 2011; 이희정, 2021 재인용).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분야에 명상상담분야는 포함되지 못했다.

명상심리상담사의 국가기관 및 지자체 심리상담 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내의 심리상담사의 역할과 직무에 따른 교육체계를 따라야 한다. 즉,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으로 인정된 자질이나 자격요건으로 발표된 학문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명상 심리 상담자는 명상기술과 지식함양을 포함하여 임상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체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인성, 윤리, 가치, 태도, 성찰 등의 태도와 능력을 갖추도록 조력해야한다(이희정, 2021). 이에 요구되는 역량(competency)을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한다(Boyatzis, 1982). 즉, 명상훈련 및 유형별 적용 방안에 대한 역량만이 아니라 상담에 대한 지식, 기술, 자질 및 태도의 측면에 대한 체계적 훈련과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김완석, 2010; 박영혜, 주은선, 2013). 따라서 명상심리 상담자들은 보편적인 심리상담사들의 교육과정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해당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그 수준을 파악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훈련과 개발, 평가와 같은 다양한 인적자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며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역량 요건을

규명하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도출된 통합적 요소들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역량 모형으로 삼도록(Marshall, Shoda과 Smith, 2003)하여 명상심리상담학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명상심리 상담자 교육 자격 양성과정에 필요한 역량군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역량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본론

국내에서 명상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심리건강에 대한 해결과 예방을 위해 명상심리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명상심리 상담자의 전문적 역할과 직무에 따른 역량 기준에 관한 개념구조에 관한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명상심리 상담자의 교육체계에 반영할 역량지표를 제시하여 그들의 직무능력 겸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의 명상과 심리상담분야의 문헌을 고찰하여 명상심리상담자의 기본관점과 개념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명상심리상담자 학습과 훈련에 필요한 역량군과 역량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명상심리상담자

명상심리 상담자는 의사소통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명상이라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내면의 접촉 경험 및 상담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상담자를 말한다. 이에 명상심리 상담자들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명상 경험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심상적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김정호, 2011), 정신 현상에 대한 진단 지식 및 평가 지식체계 구축 및 명상 유형별 적용 방법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내담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 역량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점도 중요하다(Anderson, Bishop, Carlson, Carmody, Lau와 Shapiro, 2004).

무엇보다도 명상에 대한 지식과 기술 체계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성과 태도에 관한 인식과 윤리적 딜레마 등과 같은 전인적 성숙에 대한 숙고도 필수적이다. 특히, 상담자는 이론적 배경이나 상담의 절차와 기술과 함께 심리상담이라는 전문 영역에서 내담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Anderson et al, 2004). 이러한 점은 심리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요인 중에서도 상담기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소한 반면, 상담자의 자질이나 치료적 관계의 질이 그 성과를 좌우한다(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명상심리 상담자의 직무의 공통 요인으로는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맺기 및 치료 계획 수립의 근거 토대 마련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명상상담을 제공해야 하는 점이다(박성현과 정준영, 2010). 그리고 명상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자세를 숙지하고 철저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김정호, 2011).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조력하고자 하는 헌신감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내담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 의식 및 존중 의식을 겸비해야 한다(Brown & Ryan, 2003). 즉, 명상심리 상담자라고 하더라도 심리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역할 및 자질 그리고 인지, 정서적 안정성이 있어야 하며, 내담자를 향한 고요하고 차분한 태도 및 선량한 마음으로 내담자의 내면의 동기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양정하, 2019). 본 연구에서의 명상심리상담자란 명상기반훈련 및 심리기반 특성을 기반으로 심리상담에 접근하는 자(인경, 2012)로 정의한다.

2. 핵심역량

핵심역량이라 함은 특정 조직의 역량 제고 및 개인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상세히 구조화시키고 그 결과에 따른

내용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두는 개념을 말한다(유현실, 2009). 핵심역량이란 자기 자신의 역할 및 직무에 관해 효과적 수행이 가능한 개인의 보유 지식 및 기술과 태도에 해당하는 능력을 포함한다(OECD, 2005). 이에 관해 연구개발 되어져 온 핵심역량모형은 주어진 직무 및 역할 규정에 부합하도록 직업훈련 분야에 적용된다(곽은희, 2018). 핵심역량의 확정 범위는 다양한 영역의 학자로부터 역량의 기능적인 측면, 개인 내적인 측면 및 총체적인 측면 등에 관한 접근 방법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영주, 2014).

Boyatzis(1982)에 의하면 직무에 임하는 개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맡겨진 개개인의 수행과제를 완수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직무자의 행동 특성을 추출하기 앞서 역량군에 따른 역량지표를 근거를 도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3. 명상심리 상담자를 위한 역량 구안의 기본관점

명상심리 상담자 역량개발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명상심리 상담자로서 발휘해야 할 역할과 책임과 그에 따른 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무와 역할에 대한 전문성 구축 및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에 임하는 사람은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인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 특성 등에 따라 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명상심리 상담자는 상담 및 심리 치료사로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나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되어 왔다(인경, 2012; 임승택, 2009). 따라서 명상심리 상담자에 관련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분야에서의 핵심역량 모델의 준거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Spery(2010)에 의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역량 기반 교육을 위한 주요 역량모델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준거는 6가지이다. 이는 치료적 관계, 개입방안, 개입실행, 개입 평가와 종결, 개념의 토대(Conceptual Foundation), 문화윤리 민감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요소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적 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라 함은 명상을 적용한 임상 및 심리상담 현장에서 긍정적 작업 동맹 형성 및 치료 촉진의 가능성을 준비하는 역량이다. 이는 명상심리 상담자의 능력과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를 가려 낼 수 있어야 하며, 해결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더불어 내담자와의 전이 및 역전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개입 방안(Intervention Planing)이라 함은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정확한 심리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 검비를 비롯하여 심

리평가의 결과 해석 그리고 사례 개념화 및 심리상담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셋째, 개입 실행(Intervention Implementation)이라 함은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 적합한 심리치료 목표를 수립할 수 있고, 적합한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한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심리상담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넷째, 개입 평가 및 종결(Intervention Evaluation and Termination)이라 함은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심리치료 과정을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법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며, 상담적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종결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다섯째, 개념의 토대(Conceptual Foundation)라 함은 내담자와의 심리 상담적 과정을 예측하고 적합한 방법을 예상하여 실행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여섯째, 문화적 윤리적 민감성(Cultural and Ethnical Sensitivity)은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적합한 요소를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효과적인 문화적 접근법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선정된 계획 및 실행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개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할 때 예민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실현할 수 있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러한 핵심역량 개념구조 수립에 필

요한 6개의 구성 요소는 각기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작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6개 요소를 통합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사가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해당 직무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준거 자료가 되어 그 직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위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특히 치료적 관계는 주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개입 방안, 개입 실행, 개입 평가와 종결은 상담 및 심리치료가 진행될 때에 그 과정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중요한 요소는 주요역량모형의 범주의 윤곽에 위치하고 있는 개념의 토대를 비롯하여 문화적 윤리적 민감성은 당연히 상담 및 심리치료사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지식과 태도의 범주에 속하며, 주요 역량으로써 위치하는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 및 상담 및 심리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위의 주요역량 요소들은 어떠한 점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다. 주요역량 요소들은 심리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을 조력하는 전문가로서 심리상담 장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과 전문가로서 지닌 역량요소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상담 및 심리치료의 질적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Spery, 2010). 국내에서 이루어진 역량모형 개발 절차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해본 바, 다음과 같다.

김봉환(2012)에 의하여 조화 및 통합 지향 상담 분야의 직무를 위한 역량 모형이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을 토대로 한 델파이 조사가 이루어졌고, 역량모형 초안 구축 및 설문조사 단계를 밟아서 최종적인 조화와 통합 지향 상담을 위한 역량 모형이 제안되었다.

이희정(2021)에 의하여 명상심리 상담자의 핵심역량모형을 탐색하는 연구가 발견된다. 이 연구는 포커스 인터뷰 및 델파이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명상심리 상담자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명상심리 상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핵심역량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역량모형 개발 절차는 문헌고찰, 심층면접을 통해 명상심리 상담자 역량모형 초안을 개발 1단계,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한 잠정적 역량모형 도출 후, 최종핵심역량모형을 확정하는 2단계가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역량모형의 중요도 검사를 통한 타당화 검증을 위한 역량모형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3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유현실(2009)에 의하여 진로상담 전문가의 역량을 탐색하는 연구가 발견된다. 이에 역량모형의 초안 구축을 위하여 문헌 고찰, 심층 면접 및 개방형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이후에 최종 역량모형을 선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역량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써

해당 직무의 실무자인 진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치 산정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2012)에 의하여 청소년 상담사의 직무 분야의 역량 탐색이 시도되었으며, 문헌 고찰 과정을 거쳐 전문가 면담과 상담전문가를 패널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역량모형 초안을 구축한 후, 3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가 더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역량 모형이 선정되고 제안되었다.

장미(2011)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모형 연구가 실행되었고, 이에 청소년지도사와 관련된 문헌 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잠정적 역량모형 도출되었다. 이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역량 내용들을 최종 역량모형으로 확정하고자 전문가 검토를 반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된 최종 역량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영란(2019)에 의하여 다문화 상담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역량모형 개발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한 전문가 면접 및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역량모형 초안 개발이 되었다. 이후 델파이 조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역량모형이 확정되었다. 더불어 중요도 조사의 일환인 가중치 평점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증을 입증하여 최종 역량모형이 선정되고 제안되었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상담자 역량모

형 구조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명상기반 심리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의 다양한 상담분야의 역량 요소 및 지표들의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즉, 위와 같은 다양한 상담분야의 직무 대상에 따른 특수 역량을 토대로 한 명상심리 상담자 핵심역량을 반영한 직무역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4. 명상심리 상담자를 위한 핵심역량군의 개념구조

본 연구는 명상심리 상담자의 역량군에 따른 역량지표를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잠정적 역량 요소를 도출 시 활용하는 문헌고찰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Boyatzis(1982)에 의한 역량군 확인은 공통된 속성으로 범주화 시킨 내용과 직무자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되는 직무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과 태도를 포함한다. 그리고 행동지표란 통상적인 역량 모형을 바탕으로 할 때 해당 역량 요소에 대하여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직무자의 핵심역량군을 도출단계를 제안한 Boyatzis(1982)의 역량요소와 역량군 탐색을 위해 문헌고찰을 채택하였다. 행동지표도출은 양적탐색을 통해 도출해야하므로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 역량군 확인방법만 채택하였다. 이에 따른 국내학자들(인경, 2012; 권석만, 하

현주, 2010; 김정호, 2011; 이희정, 2020)이 강조한 명상심리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3가지 핵심역량 개념은 <표 1>과 같다.

<표 1> 명상심리 상담사 핵심역량군 3가지와 개념

핵심 역량군	개념
지식	명상심리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명상심리 상담의 역할에 대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을 구축.
기술	명상심리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명상심리 상담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천적 지식과 능력.
태도 및 개인자질	명상심리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명상심리 상담의 역할을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인성, 윤리, 가치, 태도, 성찰 등의 태도와 능력.

1) 지식 역량군

지식 역량군은 명상심리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명상심리 상담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그 개념 정의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지식 역량군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에 대한 지식(권석만과 하현주, 2010; 김봉환, 2012; 김정호, 2011)은 명상심리 상담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담 이론 및 기법에 관한 지식(김봉환, 2012), 정신 병리에 관한 지식(김정모, 배재홍, 장현갑, 2007), 성격 심리에 관한 지식(박성현, 2006), 심리평가에 관한 지식(김정호, 2011)을 포괄한다. 둘째, 명상심리

상담 연구에 대한 지식은 명상심리 상담의 효과에 대한 지식(김교현, 2008), 명상심리 상담의 연구 방법에 관한 지식(권석만, 하현주, 2006), 명상심리 상담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효과성에 관한 지식(김정호, 2011), 명상 방법에 대한 지식(김정호, 1996)을 포함한다. 셋째, 명상훈련 지식을 위해 명상 방법에 대한 지식(김정호, 1996), 명상 방법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지식(김완석, 2010), 명상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응용 기법들에 관한 지식(김정호, 2011), 명상 훈련 과정에 대한 지식(김재성, 2012)을 포함한다. 넷째, 내담자에 관한 지식을 위해 환경(발달력, 가족력)에 대한 지식(김준혜, 2013)을 포함한다. 다섯째, 직무 지식을 위해 소속 기관에 관한 지식(Segal, Teasdale, Williams, 2002), 명상 관련 지자체나 정책에 관한 지식(권석만과 하현주, 2010), 심리건강에 대한 지식(인경, 2012)을 포함한다.

2) 기술 역량군

명상심리 상담자의 기술 역량군은 명상심리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명상심리 상담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실천적 지식과 능력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기술역량군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기술역량군이란 명상심리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명상심리 상담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그 개념 정의에 포함하였다. 이에 기술 역량군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문헌고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 역량을 위한 상담이론 및 기법의 활용 역량(Langer, 2005), 통합적 사례 개념화 역량(박미옥, 2013), 다문화적 역량(김현주와 전상길, 2006), 심리 사회 복지적 역량(박지하 등, 2010), 명상 훈련의 실제 역량(김교헌, 2008)을 포함한다. 둘째, 명상연구 수행 역량을 위한 연구계획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문장 능력 및 수립과 실행 역량(박영혜와 주은선, 2013; 유정이 등, 2014), 프로그램 계획, 구성, 운영에 관한 역량(김도연과 손정락, 2012)을 포함한다. 셋째, 교육 업무 수행 역량을 위한 명상 훈련 교육 능력(고진호, 2014), 심리 상담 교육 능력(김준혜, 2013)을 포함한다. 넷째, 명상심리 상담 환경 조성 및 행정업무 수행 역량을 위한 명상심리 상담실 관리 역량(곽은희, 2018), 소속 기관의 업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 역량(Segal, Teasdale, Williams, 2002), 명상심리 상담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박지하, 양영필, 이상남, 한창영, 2010)을 포함한다.

3) 자질 및 태도 역량군

명상심리 상담자의 태도 및 개인 자질 역량군은 명상심리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명상심리 상담자의 역할을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성, 윤리 및 가치,

태도, 성찰 등의 태도와 능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태도 및 개인 자질 역량군의 역량 요소는 총 세 가지의 역량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에 기술역량군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 역량을 위한 개인적 인성(김진숙, 2005), 다문화적 인성(김현주과 전상길, 2006)을 포함한다. 둘째, 윤리 강령 준수 역량을 위한 내담자의 명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상에 대한 역량(박성현, 2006) 및 비밀 준수 및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역량(김창대 등, 2008)을 포함한다. 셋째, 자기 계발 역량을 위한 심리 및 직무 소진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역량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역량(김준혜, 2013)를 포함한다.

Ⅲ. 결론

본 연구는 명상심리 상담자 역량요소제안을 위해 명상심리 상담자 역할 및 직무, 명상심리 상담 효과성, 명상심리 상담자 전문성, 명상심리 상담 교육과정, 역량모형 등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명상심리 상담자의 기술, 지식, 자질 및 태도를 기초로 한 역량군과 역량요소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성현과 정준영(2010)이 강조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명상심리 상담자가 인식하고 있는 명상심리 상담자

의 역할이 내담자에게 적절한 명상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권석만(2006), 김교현(2008), 김정호(2011) 및 인경(2012)가 강조한 바와 같이 서구의 지식체계인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의 방법론을 통합하고, 동서양의 명상 수행 방법과 심리치료 방법을 통합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김정호(2011)가 강조한 바와 같이 명상을 토대로 한 심리상담자로서의 전문성 및 정체성에 대한 역량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명상과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통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인경(2012)이 강조한 바와 같이 명상심리 상담자는 명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나 품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이희정(2021)에 의해 강조된 바와 같이 명상기술과 지식함양만이 아닌 임상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반영된 교육체계 마련과 인성, 윤리, 가치, 태도, 성찰 등의 태도와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포커스인터뷰를 통한 핵심역량도출과 델파이조사를 통한 타당성검증 및 전문가들 중심의 중요도 조사를 거친 최종확인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정 직무자의 핵심역량의 개념구조 확인을 위해 광범위한 문헌 탐색을 통해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는 Sperry(2010)의 핵심역량 구안의 기본관점과 Boyatzis(1982)의 지침에 따랐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외의 명상심리상담학 및 핵심역량모형개발에 관한 문헌들을 통합하여 명상심리상담자들의 핵심역량의 개념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명상심리 상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 기술, 자질 및 태도 역량 중심의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명상심리 상담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윤희·박성현(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05-839.
- 고진호(2014). 마음챙김의 교육적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은희(2018).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하현주(2010). 마음챙김 명상의 심리치료적 적용을 위한 제언. 불교학보, 0(56), 241-271.
- 김교헌(2008). 마음챙김과 자기조절 그리고 지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7-34.
- 김도연·손정락(2012). 마음챙김에 기반한 청소년 자살방지 프로그램이 자살사고, 우울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323-339.
- 김봉환(2012). 조화와 통합 지향 카운슬링을 위한 상담자 역량 탐색. 상담학연구, 13(6), 2697-2713.
- 김영주(2014). 자연친화교육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 모델 개발. 인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완석(2010). K-MBSR과 MBSR의 이론적 토대와 프로그램 비교: K-MBSR의 확립을 위한 개관연구. 한국명상치유학회지, 1(1), 17-42.

- 김재성(2012).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Chritoriper K. Germer Ronald D Sigel Paulton 공편. 서울: 학지사.
- 김정모·배재홍·장현갑(2007).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개발과 SCL-90-R로 본 효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833-850.
- 김정호(1996). 한국의 경험적 명상연구에 대한 고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1, 1-35.
- 김정호(2011). 마음챙김명상 멘토링. 서울: 불광출판사.
- 김준혜(2013). 상담자 발달수준, 마음챙김 및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인간 이해, 34(2), 95-109.
- 김진숙(2005). 상담자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13-831.
- 김창대·권경인·한영주·손난희(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현주·전상길(2006).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을 위한 상황론적 접근. 인사조직연구, 14(2), 107-139.
- 박미옥(2013). 마음챙김의 교육적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현(2006). 마음챙김척도개발. 카톨릭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박성현·정준영(2010). 초기불교의 사띠(sati)와 현대심리학의 마음챙김 (mindfulness): 마음챙김 구성 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2.

박영혜·주은선(2013). 포커싱 상담수련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포커싱 상담수련자들의 자기보고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4(2), 131-150.

박지하·양영필·이상남·한창영(2010). 국내 저널에 게재된 마음챙김명상 관련 연구동향분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1), 81-89.

양미진·조수연·이소엽(2012). 청소년상담사 개인 및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소진 차이. 청소년상담연구지, 20(1), 17-35.

양정하(2019). 도박중독 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영원·정승진·문영주·이경아·이상선(2011). 대학상담센터 상담자의 역량과 자질 연구. 대학생활연구, 17(1), 1-17.

유현실(2009).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란(2019). 다문화상담자 역량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필원·인경(2010). 심리치료와 불교(안도오사무 편저). 서울: 불광출판사.
- 이희정(2021). 명상심리 상담자의 핵심역량모형: 포커스 인터뷰 및 델파이 조사중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인경(2012). 명상심리치료-불교명상과 심리치료의 통합적 연구.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 임승택(2009). 사띠(念, satti) 개념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재검토. 한국명상상담학회, 3(0), 34-72.
- 장미(2011). 청소년 지도자의 직무역량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hn, H. Y.(2008). Mindfulness and its mechanism for transformativ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Implementation*, 7(2), 59-77.
- Anderson, N. D., Bishop, S. R., Carlson, L., Carmody, J., Lau, M., Shapiro, S.(2004). Mindfulness: A proposed oprational definitio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1, 230-241.
- Boyatzis, R.(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J: JohnWiley

- & SonPublishing.
- Boyatzis, R.(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J: JohnWiley & SonPublishing.
- Brown, W. K. & Ryan, M. R.(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822-836.
- Langer, E.(2005). Well-being: Mindfulness versus positive evaluatio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14-23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shall, W., Shoda, Y. & Smith, R. E.(2003). 통합을 향하여- 성격심리학. 손정락 역(2006). 서울: 시그마프레스.
- Marshall, W., Shoda, Y. & Smith, R. E.(2003). 통합을 향하여-성격심리학. 손정락 역(2006). 서울: 시그마프레스.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 Segal, Z. V., Teasdale, J. D. & Williams, J. M. G.(2002). 마음챙김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 이우경·조선미·황태현 공역(2006). 서울: 학지사.

Spencer, L. M. & Spencer,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J: John Wiley & Sons.

Sperry, L.(2010). *Highly effective therapy: Developing essential clinical competenci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Y: Routledge.

접 수 일(2024년 9월 30일)

수 정 일(2024년 12월 27일)

게재확정일(2024년 12월 27일)